

'중화와 이적' 에서 '중국과 서양'으로

: 19 세기 전기 중국에서의 서양 패러다임과 정보전략

우 이씨웅 (중산대학)

【발표요지】

중국 학계에서는 근대 이전의 중국인은 구미를 ‘이적(夷狄)’ 이라고 했지만 아편전쟁 이후에는 ‘서양’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기술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기술의 대부분은 넓은 시야에서 사상사의 변천을 그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과 서양간의 구체적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른 관념의 변천 등은 주시하지 않았다. 아편전쟁 이전 청나라의 ‘천하’개념에서의 서양국가는 ‘이(夷)’에 해당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인식은 청나라가 구미제국을 ‘호시국(互市国)’이라고 하는 정치철학의 기초였다. ‘조공국’과는 달리 서양인은 자신이 ‘이’라고 불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호시’가 청조의 은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또 그러한 신분인식을 무역발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1810 년대부터 30 년대에 걸친 영국과 중국 사이의 대항의 개념적인 저류를 형성하였다. 청나라는 이러한 대항을 통해 ‘천하’ 개념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19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천하일도(天下一道)’라든지 ‘이하(夷夏)의 변(弁)’과 같은 관념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었다. 한편, 구미는 1830 년대라고 하는 특정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국과 서양의 관계에 있어서의 개념인식을 바꾸려고 결심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중국과 서양의 문명적 지위에 관한 논술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두 번의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과 서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청나라의 발언권을 부정했다. 또한 동시에 아편전쟁 이후에는 ‘외이(外夷)’를 대신하여 ‘서국(西国)’이 점점 청나라와 구미제국을 서술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고, 그 후 ‘서방(西方)’(서양)으로 바뀌었다. ‘중서’(중국과 서양)이라고 하는 표현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천하일도’의 사상이 깨지고 ‘도분위이(道分爲二)’(길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는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다.

【경력】

우 이씨웅/吳 義雄/Wu Yixiong (중산대학 역사학 교수)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통청현(桐城縣) 출신. 1962년 생. 1983년 안후이대학교(安徽大學) 역사학부 졸업. 1986년 푸단대학교(復旦大學) 석사. 1999년 중산대학교(中山大學)에서 박사학위 취득. 1986년부터 중산대학 역사학부에서 교편을 잡았다. 현재 역사학부 교수. 광둥성(廣東省) 역사학회 부회장. 광둥성 종교학회 부회장. 전공은 중국근대사. 중국과 서양문화교류사를 연구하며 다수의 학술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저서로는 『在宗教与世俗之间-基督教新教传教士在华南沿海的早期活動研究』(2000), 『条约口岸体制的酝酿: 19世纪30年代中英关系研究』(2009), 『开端与进展: 华南基督教史论集』(2010), 『在华英文报刊与近代早期的中西关系』(2012), 『大变局下的文化相遇——晚清中西交流史论』 등이 있다. 학술논문 60 여편 발표. 학술회의를 다수 개최해왔으며,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에서 방문연구 등 학술교류활동에 참여했다. 전국대학인문사회과학 우수성과상 등을 수상.